

News & News

차기 정부 구강보건으로 정책밀그림 제시 치과의로 정책토론회 성료

차기 정부의 구강보건으로 정책과제에 어떤 아젠다를 담아나아가는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은 지난 12월 1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구강보건으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치과의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치과 의료를 위한 정책 도출에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정세환 교수(강릉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사회의 키워드인 '저출산 고령화' 아이টে에 맞춰 아동·청소년과 노인을 타깃으로 한 아젠다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중심 치과의로 전면보장의 토대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과 인두제 도입을 구축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에 기반을 둔 치과의로 전달체계 확립을 구축하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선택의 문제인데 소수의 치과의원만이 2대 8로 부유해지는 치과계를 원할지, 아니면 공평하지 않지만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모두 함께 나갈지 결정을 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성인까지 주치의제도를 실시했다가 후퇴했지만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치과의로 인력정책 ▲치과의로서비스 보장성 강화 ▲치과의료산업 ▲치과공공의료확충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 다섯가지 큰 틀을 놓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특히 의료공급자인 치과의를 위한 의료연금지도가 건의돼 관심을 모았다.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아젠다가 많이 제시된 듯하다"며 "여러가지 제안된 정책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공급자인 치과의를 위한 아젠다 개발이 소홀한 듯하다. 치과의사들이 노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의료에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권리도 확보해줄 필요가 있어 의료연금지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영식 이사는 "2008년에도 협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치과의료계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수개월 내로 인수위원회에 낼 정책 건의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책 건의서를 만드는 작업과 함께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시행방안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News & News

보건으로 5개단체, 올바른 보건으로 정책수립 촉구 대선후보 캠프에 공동 정책제안서 전달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5개 단체는 지난 12월 5일 공동으로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공동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올바른 보건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정책제안서에서 ▲전문 직능에 대한 존중과 전문 직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의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무소속 이회창 후보캠프에 지난 5일 전달됐다.

5개 단체는 제안서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으로 정책은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부도덕하게 많이 가진 집단으로 치부하며 이를 박탈하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어 보건으로 전문가들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불신이 조장됐다"며 "사회의 발전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존중하는 보건 의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단체는 "현행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 하에서 공급자단체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은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건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위원 구성상 근본적으로 공급자의 기본적인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최소한의 합리적 논의 구조조차 상실된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수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 단체는 "제도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보험제도 전반의 운용에 대한 제반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토록해 정부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개 단체는 "현재 동네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동네약국 등은 경영상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고 지난 5년 동안 일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배려없이 무한 경쟁 체제로의 방치나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 정책은 일차 보건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속시키고 있다"면서 "1, 2 3차 종별간 적절한 역할이 정리돼야 하며 특히 일차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5개 단체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등을 포함한 유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불필요한 국민들의 비용 소모를 줄이고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정책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
& News

경북 등 4개 진료처 일류 병원 육성기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축하연 '성료'

치협은 지난 10월 17일 제정 공포된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제정 축하연을 지난 12월 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안성모 협회장, 유기홍 국회교육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의원, 임해규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 지헌택, 윤홍렬, 김정균, 이기택 고문 및 정재규 명예회장과 전남, 전북, 부산, 경북치대 학장 병원장 및 4개치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치대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치과병원으로 재도약하게 될 4개 국립대 병원 치과 진료처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축하연은 지난 30여년간 의대병원에 예속, 치과진료처로 존재했던 경북, 전남, 부산, 전북 등 4개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승격 독립되는 것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안 통과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유 의원과 임 의원 및 지방 국립 치과대학병원 독립법안화 추진위원회 김영진 의장에게는 2만5천 회원의 정성이 담긴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 자축연을 뜻 깊게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축하연에서 "치의신보에도 보도 됐듯이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국회통과는 치과 독립의 날과 같은 의미"라면서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다. 이기택 고문이 한 집행부에서 법

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명분 있는 법안이었고 노력한 것에 비해 빨리 통과도 됐다. 특히 임해규, 유기홍 두 의원이 질 높은 치대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알고 추진해 줘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또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의 안건 1번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사정으로 심의 못했던 일, 법안 발의자인 고 구본회 의원과의 일화 등을 소개하는 등 쉽지 않았던 법안 추진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안 협회장은 특히 "지금부터 교육부와 협의해 4개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빨리 승격토록 하고 우수하고 올바른 국민을 위한 치과 의사 육성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도 건배 제의를 통해 "정말 축하 해주고 싶어서 왔다. 치과계가 하나로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하나 라는 건배 구호를 제창, 축하연의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날 축하연에서는 축하 케익 커팅에 이어 최재갑 경북치대 교수가 그 동안 지방 국립치대에서 치과진료처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좌절했던 30여 년 간의 역사를 슬라이드를 통해 재조명,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News
& News

이기택 고문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영예 치의신보 창간 41주년 기념식 및 2007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지난 41년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매년 발전을 거듭해 온 보건의료계 최대 정론지 치의신보의 창간 41돌을 축하하는 기념식 및 2007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0일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다.

치의신보가 매년 올해를 빛낸 치과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의 영예는 치과계 르네상스를 이끈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기택 치협 고문에게 돌아갔다.

1부 창간기념 행사와 2부 2007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안성모 협회장,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 김춘진·이경숙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전 복지부 장관), 윤홍렬·김정균·이기택 고문, 박종수 의장, 김계중 부의장, 주수호 의협 회장 등 정·관계 및 유관단체, 치과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40주년 기념식에서 치의신보 발전을 위해 '읽히는 신문', '따뜻한 신문', '열린 편집'을 지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던 반면 내용이 건조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66년 창간이래 41년간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고령화 등 치과로계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안목과 폭넓은 취재로 해안을 제시하면서 치과계는 물론 보건의료계를 선도하는 정론지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박종수 의장, 이경숙·김춘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치의신보 창간 41주년과 이기택 고문의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어 2부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서는 이기택 고문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신성 치과기재 주식회사에서 후원한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됐다.

이기택 고문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역대 치의신보 편집인으로서 관심과 애정으로 치의신보를 보고 있다"면서 "치의신보가 주는 큰 상을 받게 돼 더욱 의미가 깊고 감사드린다. 이 상은 협회장 재직시절 했던 일 때문에 주는 것인 만큼 23, 24대에 같이 일했던 치협 집행부 임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기념식에서는 케익 커팅 및 윤홍렬 고문의 건배제의로 치의신보 창간 41주년과 이 고문의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을 축하했으며 치의신보가 치과계는 물론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정론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